

# 해외 연구연가 참가 보고서

2006년 1월 9일

보고자 : 김 영 옥  
노동통계연구부 연구위원

1. 연수자 : 김영옥 연구위원

2. 연수기간: 2005년 1월 1일 - 2005년 12월 31일

3. 연수기관: University of Michigan,  
Institute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  
(Women's Studies Program)

4. 연수목적

- 가. 미국 여성고용, 복지, 젠더이슈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료 수집, 관련 기관 방문, 관련 학자와의 교류
- 나.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소 초빙교수의 신분으로 체재하면서 미국사회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운영시스템 파악

5. 주요내용

- 가. 미시간대학 여성젠더연구소(IRWG)의 brown bag series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13일 "What is so Special in the Korean Women's Labor Market?" 발표 (첨부: 홍보자료 및 발표자료)
- 나. 한국 여성노동정책 현황 및 본원 소개(인터뷰기사가 IRWG의 2005 Fall Newsletter에 수록됨)
- 다. 미시간대학 여성젠더연구소, 사회조사연구소(ISR), 경제학과, 공공정책대학원(Gerald R. Ford School of Public Policy) 등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 및 토론
- 라. 미시간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의 "빈곤과 불평등" 과목 청강(2005.9-12)
- 마. 미시간대학 사회학과의 "여성과 취업" 과목 청강(2005.9-12)
- 바. 강의 및 연구방법 향상프로그램인 제8차 Enriching Scholarship에 참가하여 다양한 교육공학 활용기술 습득 및 "집단작업 이끌기", "문제중심 학습법" 세미나 참석
- 사. 여성패널자료 구축과 관련하여 사회조사연구소(ISR), 공공정책대학원(Gerald R. Ford School of Public Policy) 등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

## 6. 평가 및 제언

- 가. 연구연가의 의의: 그간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외국기관을 방문해 본 경험에 있는데, 기관방문의 경우 문헌자료 수집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득이 있지만 또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. 연구연가를 통해 갖게 된 교환교수의 신분은 대학내 모든 인적, 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소통을 가능케 함. 또한 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두툼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.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함으로써 내부구성원의 눈을 갖고 대학내 학과 및 연구소 운영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음.
- 나. 새로운 방법론 습득 기회: 각종 세미나와 수업에 정식으로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방법을 습득하고, 평가방법과 교수방법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됨.
- 다. 연구기관의 선정: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적합한 연구기관 및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. 또한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. 큰 대학은 학제간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리하고, 작은 대학은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임.
- 라. 연수개시 시점: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8월말-9월초에 학사일정이 시작됨. 교환교수의 선정 및 연구실 배치문제 역시 이 시기를 교체시점으로 하여 처리함. 그런 측면에서 1월에 연수를 시작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음.